

建築士의 自律性

Focus/The Architect's Autonomous Right

金熙春

서울大學校 名譽教授

정치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無彈無石의 환경 속에서 참다운 뜻에서의 정치가 시작 될 것이다. 그러나 이땅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難題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 사회 각분야의 自治와 自律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민주화의 첫째 안건이 될 것이다. 건축분야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정부의 일방적 견해로서 시행해 온 정책들이 적지 않다. 그들 중 가장 중요한 몇가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 1) 건축을 정치이념의 表象化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문제.
- 2) 建築行政機關과 지원기관에 관한 문제.
- 3) 건축교육제도에 관한 문제 등.

첫번째 문제를 생각하며 이 문제에 앞서 우선 건축의 전통논의부터 해야겠다. 이 논의의 배경은 주로 國際主義에서 상실한 로칼리티를 어떻게 재현하는가 하는 것이 집점이 되었으며 이는 국제주의에 대한 도전에 뒤이은 자연스런 建築史의 展開樣相이라 보겠다. 그러나 한국의 傳統性 登場의 배경은 前記한 국제주의에 대한 反動으로서의 범세계적 추세인

로칼리즘 건축운동의 확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대 한국건축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제주의 건축양식이 이식될 시간적 여건을 갖출 기회가 없었다. 우선 한국의 현대건축은 우리의 고유의 양식으로부터 현대건축으로 연결되는 내적전통의 과도기를 갖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현대건축은 전통의 뿌리에서 소생한 현대라는 짝이 아니라 단지 西歐로부터 移殖된 接木과 같은 양상이다. 또 한가지 전통논의의 중요한 배경으로서 軍事政權과 南北韓의 대치로 야기된 民族主義의 내지는 내셔널리즘의 표방이 작용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자칫하면 프로파간다의 수단으로 전락될 우려가 많다. 그것은 기념성, 상징성을 요구하게 되며 의도적 조형의지를 강요 당하게 된다. 그 결과 전통성 구현이 가장 왜곡된 건축공간으로 표시되어 버린다. 이밖에도 관광취미의 발로라고 생각되는 천박한 전통의 표현사례들을 볼 수 있다. 이제 建築士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입장에서 우리는 전통성의 참다운 의미를 해석하여 어떻게 수행하겠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통논의의 자세는 고건축 연구나 찬양에 그칠 것이

아니라 민족적 감수성에 밀착될 수 있는 건축적 고유가치를 찾아내는 데 달려져야 할 것이다. 復古趣向 내셔널리즘에 근거한 傳統解析은 현대적 전통논의가 태동되기 위한 과도적 사실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건축에 있어서의 전통성 구현은 외부에서의 강요가 아니라 建築士 스스로가 내면에 누적된 것이 자연스러운 창조적 표현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Wright 나 핀란드의 Aalto 의 건축은 이러한 작가에게 내재하는 風土性의 자연스러운 귀결을 보여주고 있다. 傳統繼承이란 과거의 답습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안티테제(반)이어야 하고 현대로서의 진테제(합)를 찾는 것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이란 그 시기의 그 작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創造的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정서속에서 생동하는 시간을 초월한 建築思想과 철학을 발견하고 그것을 현대의 건축으로 표현하는 작업이 또한 미래에 이어질 현대의 전통을 수립하기 위한 建築士의 과제일 것이다. 두번째와 세번째문제의 해결은 여러가지로 광범위하게 토의하여 결정할 것이지만 지면상 간단하게 그 방향만 제안하여 둔다. 이 문제의 해결에 앞서 먼저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여건을 상기시켜야 하겠다.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는 한치의 땅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조건하에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대열에 도약 할 것이 예견되고 있는점! 건축이 일반예술과 과학기술과도 다른 독특한 분야로서 이해해야 할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의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機關으로서 ○ 建築院 設立을 추진한다. ○ 대학의 전문교육은 建築大學으로 綜合化한다. 이상 몇가지를 建築士의 自律性을 주장하면서 제안하는 바이다.